

자재·인건비 등 공사비 폭등...유동성 위기 지방 건설사 '직격탄'

‘건설공사비지수’ 최근 4년 사이 30% 상승
경기 침체 장기화...미분양 78% ‘지방 집중’
설계단가·안전관리비 요율 등 현실화 절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재·인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건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사들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주택 미분양, 수주 감소 등 유동성 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공사비지수 ↑ 건설업 수익성 악화
2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45(p)로 전월 대비 0.56%, 전년 동월 대비 0.88% 올랐다.

주목할 점은 2020년 건설공사비지수 100(p)을 기준으로 2021년 115.52, 2022년 125.52, 2023년 129.34, 2024년 130.45로 최근 4년 사이 30% 상승했다는 것이다.

건물건설과 건축보수지수는 전월 대비 0.60%, 토목건설지수는 0.48%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와 같은 직접 공사비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 부문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해 건설기술연구원이 작성하는 가공통계다. 건설공사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

정하는 지수로 공사비 시차 보정, 계약 금액 조정 등에 활용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상승은 건설업체들의 원가를 하락해 주도, 수익성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자재비 인상은 물론 인건비도 꾸준히 올라 건설공사비지수가 급상승했다”며 “불경기 속 건설사들의 원가 압박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경기 침체...폐업 건설사 증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폐업하는 건설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건설업 폐업 신고는 3천164곳(종합공사업 540곳, 전문공사업 2천62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2천599곳) 565곳 증가한 수치다.

폐업 사유를 보면 ‘사업 포기’가 가장 많았으며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폐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고금리 장기화에 건설경기 침체를 버티지 못한 지방의 중견·중



다양한 창업정보가 한눈에...

창업기업의 도약·성장 등을 지원하는 지역 최대 규모의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이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이날 개막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소회기와 스프링클러 스타트업 업체 제품을 관람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예리 기자

소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월 기준(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천776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78%인 5만1천909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악성 미분양’

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1만7천262가구에 달한다.

◇‘현장 반영 단가 현실화’ 여론 비등
지방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일부 세 부공종 설계단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실제 거푸집 중 합판

거푸집의 표준시장단가는 규격별 4~7만 원 정도로 설계 금액에 반영되고 있지만 하도급단가는 7~10만원에 형성돼 있다.

거푸집의 경우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거푸집 항목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거푸집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안전관리비 요율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공사 중 안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돼 안전관리비 실사용 금액이 설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관리비 산정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이유다. ▶2면에 계속

/임채만 기자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 논의 본격화

‘공동추진위원회’ 출범...2026년 3월 통합 목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공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학 통합·통합 의대 추진을 위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28일 목포대·순천대에 따르면 전날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공동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 통합 신청서 작성·제출을 위한 추진 방향과 상세 일정 등을 논의했다.

양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공동추진위원회’에는 대학 주요 보직자 7명, 교수·직원·교조·학생 대표 1명씩 각 대학별로 12명씩 참여하고 있다.

양 대학은 2026년 3월 통합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026학년도 통합의대 설립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예비평가인증을 신청하는

등 차질없는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 설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 대학은 국립목포대 교무처장과 국립순천대 대외협력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대학통합 실무위원회’도 함께 구성해 관련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통합 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대학통합 실무위원회’는 ▲특성화·입학 ▲교육·연구·학생·산학 ▲행정·인프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교명

선정 방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대학 통합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함께 조율할 계획이다.

실무위에서 수립된 통합 계획(안)은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양 대학 통합은 글로벌 대학 간 최초의 통합으로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해 초일류·초글로벌 지역 거점대학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양 대학이 진정한 자세로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정부도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 약속을 신속히 이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상호·순천=양홍렬 기자

기준금리 0.25%p 살짝 인하...년 3.25%→3.00%

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p 낮췄다. 지난달 0.25%p 내린 이후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조치다.

▶관련기사 13면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 등 어두운 경기·성장 전망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 성장률 눈높이를 각 2.2%, 1.9%로 0.2%p씩 낮춰잡았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Today

박계영 대표의 ‘제철음식’...은행 14면
동인선생 역경경과...육십사과 15면
해결사 ‘아사니’...광주 16강 간다 16면

겨울철 난방비 절약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가스요금 줄이고, 캐시백 챙기자!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신청 및 절감기간
• '24년 12월 ~ '25년 3월

구글, 네이버 검색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https://k-gascashback.or.kr>

절감 예시

절감률	요금절감액	캐시백	절감총액	예상요금
5%(20㎡)	18,860원	1,000원	19,860원	358,600원
10%(40㎡)	37,720원	4,000원	41,720원	336,740원
20%(80㎡)	75,440원	16,000원	91,440원	287,020원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C 유지

한달 사용량 **5.5%** 5,227원 절감

샤워시간 5분 줄이기

한달 사용량 **7.2%** 6,826원 절감

에어캡(복벽이), 문풍지, 커튼 활용 틈새 열손실 ↓

한달 사용량 **5.5%** 5,227원 절감

사용하지 않는 방 분배기 밸브 잠그기

한달 사용량 **4.4%** 4,160원 절감

보일러 노후배관 쌓인 오염물질 제거

한달 사용량 **5.0%** 4,760원 절감

노후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한달 사용량 **10.4%** 9,901원 절감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한달 난방비 절약! 사용량 38% 36,101원 절감!